

더덕 농가 42% 피해... 성산·구좌·표선 집중

가뭄과 올여름 폭염에 22억원대 피해 발생
도, 보험 대상 품목에 더덕 지정·확대 건의

올해 가뭄과 폭염으로 제주지역 더덕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에 농작물(임산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등 가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더덕 재배 470농가(재배면적 314ha)의 42%인 199농가에서 가뭄과 폭염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피해는 성산·구좌·표선 지역에 집중됐으며 전체 피해 규모만 22억7000여 만원에 이를 것

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더덕은 임산물로 분류되지만 현재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도 제한적이어서 농가들의 피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9월 15일까지 임산물 피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파대·농약대 등 직접 지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간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고 지원을 위

해 산림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대파대는 피해로 다시 파종·식재하는 경우 ㎡당 2211원, 농약대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가 필요한 경우 ㎡당 259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도는 지난 8월 18일 산림청을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건의한 데 이어, 9월 2일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융원)에 더덕의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농금융원은 제주도가 요청한 더덕의 신규 품목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가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더

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관수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폭염·가뭄 피해를 입은 더덕 재배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현황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 대책과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농가들은 더덕 유통단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피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재해보험 신규 품목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미쁜사람들이 올해 처음 지원한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으로 주민들이 한 데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쁜사람들 제공

“마을이 품은 사람들과 만드는 행복 공동체”



<9> 미쁜사람들(상)

원주민·정착주민 장벽 없는
마을주민 간 연결고리 고민
“마을에 도움되는일 하고 파”

“2015년에 와서 이제 딱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끼리 농담 삼아 이제 나도 ‘반 제주인’이라고 말하지요.” 지난 15일 제주도 한경면 청수리에서 만난 ‘미쁜사람들’ 대표 장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다. 이곳으로 귀촌한 지 2년이 넘었을 때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맡을 만큼 마을에 빨리 녹아들었던 그다.

“육지에서 왔다고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마을 주민분들이 다들 품어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10년 넘게 살 수 있었죠.”

그가 이끄는 미쁜사람들 안에서 도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장벽이 없다.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 ‘청수 어멍’이 그 시작이었다. 2021년 첫 출발을 함께한 5명 중 3명이 청수로 이주한 귀촌인, 나머지 2명이 제주를 벗어난 적 없는 토박이었다. 자신들이 그

랬던 것처럼 원주민과 정착 주민이 “서로 어울림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주민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고민하게 했다.

청수 어멍이 2022년 주민 주도 사업으로 어르신 반찬 나눔에 나선 데에도 이런 뜻이 담겼다. “5명이 호기롭게 100명 어르신에게 나눠드릴 반찬을 했다”고 장 대표가 떠올렸다. 두세 번째엔 인본 수를 줄이기는 했지만, 적은 인원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보람이 컸다.

장 대표는 “삼춘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때 내가 준 반찬 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네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들 ‘우리 이런 거 하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청수 꽃자왈을 함께 청소하거나 주민 대상 체험 활동을 운영하며 모임을 이어왔다.

그러다 올해 ‘미쁜사람들’이란 이름으로 공식 단체 등록까지 마쳤다. 현재는 청수는 물론 같은 한경면 내 저지리, 낙천리 등 주민들까지 모두 10명이 함께하고 있다.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 번 해보자”는 첫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에는 제주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에도 도전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어울리는 자리가 이어지길 하는 바람에서다. 그래서 사업 주제도 이렇게 정했다. ‘마을이 품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김지은기자

<재작 자원-제주특별자치도청>

도,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시설 등 정비

온열의자·점자블록 등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온열의자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연석 높이를 낮추는 등 도내 버스승차대 정비에 나섰다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버스승차대 65개소의 시설 개선을 마치고 하반기 35개소를 추가로 개선한다.

이번에 개선한 65곳에는 원형 표지판과 낮은 비가림 승차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

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회전 공간,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 겨울철 대기 환경을 위한 온열의자도 함께 갖췄다.

그동안 시설 개선은 동 지역 승차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와 함께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 주는 버스정보안내기(BIT)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으로 설치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30일 제주시 동문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식품안심구역 지정식 및 현판 제막식 모습. 제주시 제공

동문시장 청년몰 ‘식품안심구역’ 지정 전국 청년몰 최초... 13개 음식점 위생상태 우수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이 전국 청년몰 최초로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이 20개소 이상이면 2/3 이상이, 20개소 미만이면 전체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식품안심업소는 위생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동문시장 청년몰은 전체 13개 일반·휴게음식점이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서 식품안심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이날 청년몰 로비에서 이상봉 제주시장과 정은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몰에 대한 식품안심구역 지정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상봉 시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지역 내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청년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